

3년 연속 국가예산 2조원대 시대 열었다

전주시, 내년도 국가예산 2조2925억원 확보… 올해 대비 1340억원 증액

전주시가 3년 연속으로 2조 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전주를 만들 밑거름을 한층 더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성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은 4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올해 당초 예산(2조 1595억원)보다 1340억 원(6.2%) 늘어난 2조 29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산업 분야 8560억 원 △광역·도시 분야 2767억 원 △문화·관광 분야 1389억 원 △복지·사회안전망 분야 1조 215억 원이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협업지능 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766억 원) △AI 신리성 검증 허브센터 구축(10억 원) 등 AI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국립 전주전문화관(5억 원) △반도체 공동연구소 운영(47억 원)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12억 원) 등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신성장 산업을 주도할 예산도 쟁겼다. 또,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285억 원) △탄소제품 표준·인증 기반 구축(21억 원) 등의 예산도 확보하며 대한민국 소재 산업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끄는 강한 경제도시를 구현하는 데 가속도가 붙게 됐다.

광역·도시 분야의 경우 시는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체험할 '호남권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2억 원)를 비롯해,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482억원) △전주역사 개선사업(80억 원) △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성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은 4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올해 당초 예산(2조 1595억 원)보다 1340억 원(6.2%) 늘어난 2조 29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린대로 BRT(72억 원) △국도1호선(속고개로~호남로 직결램프) 교통 개선(5억 원) 등 광역 교통망 인프라 구축 및 미래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 예산으로는 △쇠터하는 구도심을 역사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차별화된 역사 도시로 탈바꿈시킬 '전주부성 정비·복원사업' (3억 원) △유학 정신을 잇는 심신 수양 및 한국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2억 원) △전주를 글로벌 그림책 문화 도시로 도약시킬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최' (2.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시는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구축(4억 원) △전주사랑의 집 분관 신축(5억 원) △전북광역 통합재활병원 건립(98억 원) 등 복지인프라 구축 예산을 확보했으며, △건강원로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6억 원) △객사천 재

해위험지구 정비(15억 원) 등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도 쟁겼다.

특히 시는 스포츠가치센터 건립과 전주부성 정비복원, 간재선비문화수련원 등 올림피 유치 경쟁력 확보와 K-콘텐츠 전략 거점 도약을 위한 신규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주 발전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됐다. 또, 협업지능 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과 AI신리성 검증 허브센터 등 AI시대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AI활용 예산과 국립모두예술관플랫폼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예산도 쟁겼다.

이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첫해인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1129억 원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총 913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김운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예산을 확보했으며, △건강원로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6억 원) △객사천 재

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무사히 쟁길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의 물꼬를 튼 시기였던 만큼 사업들이 무사히 진행돼 더 큰 기쁨과 함께 시민들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을)은 "전주·전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확보된 예산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 가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퍼지컬 AI를 전복이 선점하도록 국무회의에서부터 모든 노력을 다한 성과이며, 올해 확보된 퍼지컬 AI 기반 예산은 전주가 국가적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 AI시대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국립 전주전문화관과 AI 신리성 검증센터 예산 또한 과방위 예산소위원장을 역임하며 꾸준히 추진해 온 수원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로 전주가 미래 과학문화의 중심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올해 전주시는 미래 100년의 원대한 밑그림을 토대로 대변혁의 골격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일심협력해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확보한 국가 예산이 시민의 삶 곳곳에서 스며들어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전주 경제 대변혁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자립준비청년 화합의 장 열려

전주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 송년의 밤 성료

전주시는 지난 3일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자립준비청년과 멘토,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주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한 해 동안의 성장과 활동을 돌아보고, 멘토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받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은 보호종료 청년을 비롯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아나운서, 금융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17명의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해 30명의 청년과 그룹형 멘토링을 진행해왔다.

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영화동아리 제작 영화 '나 스스로 서는 중입니다' 상영 △멘토링 사업 주요활동 보



고 △멘토·멘티 활동 소감 공유 △멘토와의 소통 시간 △가수 하림의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자립준비청년들과 멘토들은 함께 웃고 공감하며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한 해 동안의 성취와 도전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뜻깊은 시간을 마무리하며 뿌듯함과 만족감을 함께 느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에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이어온 전북은행, KT&G, 전북특별자치도 여의사회, 전주시 여의사회, (사)이웃사랑의 사회 등 5개 단체에 감사패가 수여됐다.

/권희성 기자

온혜정·송영진 전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전주시의회 온혜정(조선, 우아1·2, 호성동), 송영진(재선, 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이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출입기자단은 이날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고 온혜정, 송영진 의원에게 각각 우수의원상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를 담당하는 신문, 방송, 뉴스통신사 등 21개 언론사로 구성된 출입기자단은 "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 우수의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고심이 깊었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달 18~26일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온혜정 의원은 역대 용역비 납린 대형불이더 부지 선정, 수송용복합사업 중단 은폐 의혹, 민생회복소비쿠폰 미신청자 등 접수조사 필요성 제기, 2년도 안된 도로표지병 고장, 잘못된 수요 예측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덕진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송영진 의원은 전주시립예술단 인사 갈등 반박, 현저히 낮은 정치인 현수막 단속·과태료 부과 비율, 재활용품 줍터래 의혹 조직적 범죄 가능성, 드론월드컵 부실 운영, 전주대대 이전 논란 시행사 경영악화·보상 미이행, 시비 조달 못해 반납하는 국비, 국제협력 행정 역량 문제 등 다양한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다.

수상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나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전주시와 시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자원 효율적 관리 주력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는 물 재이용 시설(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과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갑작스러운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최근 운용 중인 빗물이용시설의 현황을 파악해 파손 및 고장으로 방치된 시설을 보수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지하수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30개의 보조관측망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복구 만전

전주시, 15일~내년 3월 15일 동파상황실 운영 등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는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동파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상황

실장으로 총 4개 반 8명으로 구성된 동파상황실을 꾸리고, 휴일과 주·야간 구분 없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30개 △100개 이하 △100개 초과 등 일일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개수에 따른 단계별 비상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인력 및 교체공사 시공업체와 함께 동파된 계량기에 대한 신속한 교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시는 가온 급강하(영하 7℃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존 동파 사고가 발생했던 취약 세대와 각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동파 예방 안내문도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파 예방 요령 안내 전단지 3만 매와 보온용 비닐 덮개 3만 매를 제작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검침원 등을 통해 배부·설치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의 논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